
2021년 제50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12. 10. ~ 12. 16.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12. 10.	시청률	0.067

【총 평】

‘한산모시의 재발견 - 충남 서천’편에서는 1500년 전통을 가진 한산 모시가 어떻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지 국가무형문화재 방연옥 선생님이 직접 모시를 짜는 모습을 통해 한산 모시의 매력을 전달했다. 특히, 한산 모시의 깊은 역사와 가치,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한산 모시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명인의 모습이 전달되었다.

옛 방식 그대로 전통 베틀을 이용해 모시를 짜는 방연옥 선생님과 전통 방식으로 한과를 만드는 최성규 명인의 전통을 고수하는 가치가 의미있게 전달되었다. 한산 모시와 관련해 모시차와 모시한과, 모시도라지청 등을 홍보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고, 서천 간척지 쌀로 만드는 한과와 간척지 쌀의 우수성을 알려주었다.

【구성 및 내용】

충남 서천으로 가서 한산 모시의 다양한 활용을 취재했다. 우선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한산 모시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시를 활용하여 차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한과도 만드는 것을 상세하게 잘 보여주었다.

충남 서천은 한산모시로 유명하다. 삼국시대부터 1500년의 역사를 지닌 한산모시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한옥으로 들어서니 40년 넘게 옛 방식 그대로 전통 베틀을 이용해 모시를 짜고 있는 사람은 국가무형문화재 방연옥 선생님이다. 삼국 시대에 그 기본 틀이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한산 모시는 풀에서 실로 만들어지기까지 약 4달이 걸린다. 그 후 씨실과 날실을 엮어 천으로 완성하고 치마 한 폭을 만들려면 4일 정도는 고된 베틀질을 해야 한다. 한산모시는 울이 가늘고 섬세한 짜임새 덕에 명품으로 여겼다고 한다.

충남 예산에서 할아버지 대부터 내려온 전통 한과 기법을 전수 받아 유과 명인으로 인정받은 최성규 씨는 한과를 만들기 싫어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과를 곧 자신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한과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개인적으로 큰 수술을 받은 후 모시를 음식으로 먹고 건강을 되찾은 후 모시에 매료돼 이곳 한산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최성규 명인은 “새로운 한과는 자연이 만들어서 자연히 발효되어서 깊은 맛이 난다고 하며 자연이 만들어 준 재료에 빛나는 행위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명인의 모습은 교만이 아니라 순응과 겸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차로 즐기는 법은 녹차 만드는 과정과 같고, 생잎은 가루로 만들어 한과 만드는 데에 섞어 사용한다. 한과는 동네 슈퍼에 납품해서 수익도 올린다. 모시에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노인들에게 좋다고 자랑한다.

모시의 활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끝에 모시잎으로 만든 차와 모시잎 가루, 그리고 그 가루를 이용한 도라지청과 한과를 만들고 있다. 최성규 씨의 유과 사업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일자리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1. 12. 10.	시청률	0.000

【총 평】

‘2021 탄소중립주간,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 도약 방안’편에서는 탄소중립주간을 맞아 그 의미와 시나리오, 부문별 실천과제 등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필요성, 탄소중립 생활 10가지 방안 정책홍보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운 기획이 돋보였다.

특히 난방온도 낮추기, 다회용컵 사용, 자전거 이용 등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 생활습관 개선을 실천운동으로 제시한 메시지 전달이 쉽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이 밖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롯해 P4G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문,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등 탄소중립 운동의 배경과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시청자 이해를 도운 구성이 뛰어났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유럽과 아프리카의 방역 강화 조치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12~17세 확진자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점에서 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해서는 청소년 접종이 필요하다고 소개한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경제&이슈’는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12월 첫째 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1 탄소중립 주간에 대해 짚어보았다. 2021 탄소중립 주간의 의미부터 탄소중립 생활 10가지, P4G 서울 정상회의 내용 및 의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전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민 하나하나의 소소한 실천이다. 이에 탄소중립 생활 10가지를 설정했다. 난방 온도 낮추기,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바람막이 설치, 주기적인 보일러 청소, 우리 지역 식재료 이용, 중고제품 이용과 나눔, 도보 및 자전거 이용 등이 포함된다.

P4G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문에는 전 세계 정상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합의한 내용이 담겨있다. 선언문에서는 녹색 회복 통한 코로나19 극복, 온도 상승 억제, 탈석탄, 해양플라스틱 공조 대응, 나라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마련했다.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안이고 B안은 화력발전소를 그대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CCUS 등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이다. 특히 에너지 발전 부분에 있어 화력발전소가 대폭 줄어들고 대신 수소기반의 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전 국민적 참여를 통한 전력 수요 감축도 유도한다. 저탄소, 녹색 산업 전환시의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을 통해 고용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탄소중립 핵심 분야의 소부장 등에 대한 산업 생태계 육성 및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알뜰신잡’은 2022년 국가장학금 신청 가이드를 소개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서민, 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신청기간은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12. 10.	시청률	0.003

【총 평】

연말과 성탄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식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아이템 등 시의적절한 소식을 전달했다. '훈훈 전등 교체 봉사'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 계층을 위해 전기 요금이 덜 나오는 전등으로 교체하는 봉사 현장을 소개했고, '칠순 잔치 대신 걸으며 1km에 100만 원씩 기부', 노인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해주는 '찾아가는 해피방'은 시니어 소식을 긍정적으로 담아냈다. "'못난이 농산물'로 농가 살리고 환경도 지켜요"와 "전통시장 '쓰담쓰담' 쓰면 쓸수록 혜택이 커져요"는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상생과 지원정책을 담백하게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 "환해졌어요" 취약계층 전등 교체 봉사
충청남도 공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농정원, 공주시 중학동 주민 등 7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의 활동을 전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집을 찾아가 오래된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해 드리고 선물세트도 증정하고 있다.
- 칠순잔치 대신 걸으며 1km에 100만 원씩 기부
부천 희망 재단 이사장은 파주에서 고향 합천까지 500km를 걸어서 귀향하면서 1km마다 백만원씩 기부했다. 여러 인연에 감사한 마음으로 60대 중반부터 계획했던 일이며, 건강관리를 잘해서 팔순에는 북한 신의주까지 걸어가고 싶다고 한다.
- 다문화 자녀들 '산타 잔치' 즐기며 추억 쌓아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산타잔치'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재주를 한껏 펼쳐 보이고, 즐거운 놀이도 했다.
- "꽃할배·꽃할매 함께해요" 대구, 찾아가는 해피방
대구시의 마을복지 계획단 사업의 하나로 대구 수성구 범어 3동의 경로당을 찾아가 그림을 그리고 꽃을 심고 뜨개질을 하는 등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 '못난이 농산물'로 농가 살리고 환경도 지켜요
경기도 평택시에서는 흠집 나거나 모양이 예쁘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B급 농산물을 모아 판매하고 있다. '못난이 농산물'은 소비해본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 '전통시장 쓰담쓰담' 쓰면 쓸수록 혜택이 커져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과 서울사랑상품권을 사용할 때페이백 이벤트와 경품 이벤트 등을 제공해 소비자들이 전통 시장을 많이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첨단 기술 활용한 '아시아 문화' 실감 체험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가상현실과 증강 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는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을 못 나가는 상황에서 수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행사였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12. 11.	시청률	0.119

【총 평】

‘54년 동안 혼자 만든 세계 최고의 제주형 한국정원’편에서는 우직하게 54년간 황무지를 개간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만든 80대 농부의 오늘이 있기까지 집념을 담아 내 관심을 모았다. 반세기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한국형 제주형 정원을 만든 성공적 스토리가 감동으로 다가왔다. 정원 조성 초기의 어려움, 황무지에서 6만 제곱미터 규모에 다양한 나무와 분재를 가꾸는 성공담, 부자가 정원을 함께 가꾸며 가업을 잇는 스토리가 몰입감을 높였다. 이 밖에 나무를 가꾸며 체득한 교훈과 철학을 털어 놓으며, 삶의 가르침을 일깨우는 계기를 제공한 점이 유의미했다.

【구성 및 내용】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의 황무지를 지난 54년간 개간하고 이제는 만 그루의 나무를 자랑하는 정원으로 일궈온 부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아버지씨의 황무지 개간과 공원 조성, 그리고 부자의 정원관리와 꿈 등으로 구성했다. 1992년 제주도 산간마을에 문을 연 정원은 개원 3년째 중국 장쩌민 주석의 방문 이후 해외 유명 인사들이 연이어 방문했다. 중국 교과서에 성범영 원장의 이야기가 실렸고 한국의 우공이라는 이름도 얻었다.

1963년 제주를 처음 방문해 황무지에 이런저런 나무를 심고 흙을 사다 퍼 날랐다. 그러다 제주도적인 정원을 만들고자 다짐했고 긴 고민 끝에 오름 형태의 동산을 만들고 제주의 현무암으로 돌담을 쌓았다. 대학 졸업 이후 제주로 내려온 아들 역시 30년째 정원을 가꾸고 있다. 6만 제곱미터 면적의 정원은 비바람을 막기 위해 돌담을 높이 쌓았다. 둘은 손수 망치로 쪼개고 다듬었다. 나무에 대한 철학과 부지런히 정원을 돌보는 부자의 모습을 담아낸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고 창의성을 살려 한국형 제주형 정원을 만들겠다는 농부의 고집이 성공의 요인으로 드러났다.

방문객 인터뷰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전하면서 철학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진 정원의 가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의 정원문화가 세계에서 최고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80대 농부의 꿈을 잘 담아냈다. 또 대를 이어 정원을 만들고 있는 아들의 나무에 대한 철학과 생각을 잘 표현했으며, 먹거리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모습도 생동감 있게 잘 담아냈다. 부자는 정원문화 조성에 자부심을 느끼며 나무 강국을 통한 문화강국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표현했다.

다양한 분재의 모습, 한라산 첫 눈, 정원 야경 모습 등 영상 구성이 눈길을 끌었고 주목, 모과나무, 해송, 폭포, 연못, 제주 바다, 한라산 설경이 흡인력을 높였다. 나무를 자식처럼 정성껏 돌보고 즐기면서 열심히 가꿔나간다는 80대 농부의 메시지가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제 부자는 정원을 둘러보며 새로운 계절을 준비한다. 대나무밭을 옮기기 위한 고민도 하고 각종 나무도 심을 계획이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12. 12.	시청률	0.020

【총 평】

‘새로운 남북관계의 주역, MZ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편에서는 MZ세대의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알 수 있었다. 특히, MZ세대가 바라보는 한반도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과 통일교육 세대들의 추억을 함께 할 수 있었다. 특히 반공 교육, 반공 포스터, 통일 포스터 등 북한을 대하는 세대별 인식차이를 알 수 있었고, 통일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핀 구성이 돋보였다. 또 세대별 통일관을 설문이라는 형식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하려는 기획의도가 좋았다.

【구성 및 내용】

MZ세대가 원하는 통일은 어떤 것일까? 남북의 서로에 대한 적대 교육 포스터를 살펴보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데올로기적인 적대감은 빛이 바래고 있는 지금, 남북한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남과북의 MZ 세대는 통일을 이뤄야 하는 세대이며 동시에 통일을 책임져야 하는 새로운 세대이다. 기존의 분단을 경험한 세대이거나 분단의 아픔을 교육받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인식은 기성세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는 반공교육의 상징인 반공 포스터를 반공에서 안보와 평화로, MZ세대는 평화교육도 지겹다는 세대별 인식을 포스터를 통해 분석하는 과정이 흥미롭고 주목도를 끌었다. 반공 포스터 세대와 통일 포스터 세대의 차이,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한 MZ세대들의 통일관 등을 통해 반공 세대인 기성세대와 MZ세대의 통일관을 들어볼 수 있었다. 통일연구원의 ‘2021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2030세대들은 통일에 대해 전체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20대의 경우,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가 42.9%로 매우 높게 나왔고, 30대도 34.2%로 높게 나왔다. 이런 2030 세대의 생각에 대해서 진행자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마크의 진행을 맡았고 음악 활동도 하고 있다”는 의미깊은 말을 전했다. 분단 상황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이 통일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이 어떤 방향을 갖고 진행돼야 하는지 기본적 물음을 알 수 있어서 유의미했다. 남북의 2030 세대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남과 북이 떨어져 산 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혼란스러울 것이고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많을 것이고, 갑자기 통일이 되기보다는 자유롭게 교류를 하고 북한이 충분한 준비가 됐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 또 기성세대의 통일 담론이 아닌 남북관계의 다양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기성세대의 통일담론이 부담스러운 분단시대에 자란 MZ세대가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더 넓은 범주에서 통일의 미래상을 그릴 필요가 있고 남북 관계에 새로운 미래를 상상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12. 12.	시청률	0.016

【총 평】

‘빛나고 싶은 종합예술인’과 ‘생계형 배우의 일상로그’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젊은 예술인의 실태와 이들이 이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해 본 기획이 돋보였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생계형 배우의 열악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지원정책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 알려주었다.

특히 K-문화 콘텐츠가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현실과 달리 열악한 국내 예술문화 분야의 현실을 진단하고 현안에 대한 고민한 기획이 공감도를 높였다. 자질이 뛰어나고 포부가 큰 젊은 종합예술인의 거리낌 없는 끼와 솔직한 고백이 예술인의 어려운 실상을 이해하고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부각하는데 도움을 줬다.

【구성 및 내용】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에서는 문제 제기형 아이템으로 ‘빛나고 싶은 종합예술인’과 해결책을 담은 ‘생계형 배우의 일상로그’를 잇따라 방송해 설득력을 높였다. 김용림 진행자는 개성이 강하고 독특한 이미지로 노년층 입장을 대변하면서 젊은 출연자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모습이 진지했다. 또 선배 예술인으로서 후배에게 따뜻하면서도 엄격한 충고를 마다하지 않은 모습이 호감을 주었다.

연극배우, 뮤지컬배우, 영화배우, 밴드보컬, 연출까지 하고 있는 종합예술인 엄태형 씨가 출연해 끈대할머니와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최근 배우들은 한 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연기는 물론 노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다. 엄태형은 밥벌이가 어려워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경험했다. 끈대할매 생각에는 배우든 뭐든 예술은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엄태형 씨는 연극영화과에 들어간 것도 수능성적에 맞춰 들어갔고 배경지식 또한 없었지만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며 각 장르에 대한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배우라는 직업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는 일종의 프리랜서다. 엄태형 씨는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외국에 장기간 휴가를 가는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버스킹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특히 배우는 일을 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생계형 배우는 그런 경우에 상당히 힘들다. 생계형 배우는 연극은 회당 출연료가 없거나 2~3만원만 받는 경우도 있다. 뮤지컬이나 드라마, 영화는 더 받기도 하지만 연극은 여전히 힘들다. 이에 예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

최근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면서 공연이 다시 늘어나고 생계형 배우들도 상황이 그나마 나아졌다. 그러나 엄태형 씨는 얼마 전 공연준비를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다치는 부상을 당하면서 공연에서 하차했다. 하지만 산재를 받지 못했다. 엄태형 씨는 계속 재미있는 연기, 예술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길 원한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12. 12.	시청률	0.068

【총 평】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뉴딜펀드’편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 뉴딜펀드의 역할과 방향성을 조명했다. 뉴딜펀드에 대한 국민 공감대 및 국민 참여 방식, 혜택과 수익성 등 다양한 분석이 제시되어 주목도를 끌었다. 뉴딜펀드는 핵심 전략 정책이며 구체적 추진 전략과 가시적 성과라는 점에서 과거 정부의 관제펀드의 실패 요인과 뚜렷한 차별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예시로 쉽게 전달했다. 또 뉴딜 펀드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뉴딜 펀드의 위험성인 4년 동안 환매가 금지된다는 점, 운용사에 따라서 수익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디지털뉴딜’이란 한마디로 경제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린뉴딜’이란 저탄소친환경 정책이며, 이 두가지는 시대가 요구하고 있고 전세계가 직면한 혁신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뉴딜 펀드’, 정부는 자체적인 자금 투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시중 은행이 한국판 뉴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뉴딜 펀드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탄소 펀드가 판매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 펀드와 청년희망 펀드가 있었지만 발매 초기에 약간의 수익을 발생하고,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수익률이 반 토막 난 과거가 있다. 뉴딜 펀드도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속에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뉴딜 펀드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었다.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이끌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고 정리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금의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2020년 8월 펀드 조성에 뜻을 모았고, 올해 3월 국민 참여 제1차 뉴딜 펀드가 판매돼 1주일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뉴딜 펀드의 수익률을 정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펀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원금 손실의 21.5% 이상은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맞으나 정부의 투자는 마중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일정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마땅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뉴딜펀드는 운용사의 수익률을 민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며 뉴딜펀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사업의 감독 및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근 홍부총리가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뉴딜 펀드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은행과 증권사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다만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4년간은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 때문에 수익 안전성만을 추구해 접근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1. 12. 12.	시청률	0.003

【총 평】

‘우울한 마음 ‘토닥토닥’...당진시 토닥이 버스 운행’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선 당진시의 수범사례를 소개했다. “아파트 앞 ‘홍물’...미사용 군 시설 철거 결정”은 신축 아파트 앞에 방치된 군부대 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철거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이 다루어 집 단민원 해소의 길을 안내했다. 특히, 실태-문제점-해결방안 모색 -해결책 도출-민원 해결 -주민 만족도 제고-기대효과 등의 순서로 설득력과 이해도를 높인 구성이 돋보였다. 특히 취재기자의 현장 탐방과 현장 화면이 현장감을 높이고 주민과 관계자의 생생한 인터뷰 내용이 실태와 문제점, 해결과정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구성 및 내용】

■ “우울한 마음 ‘토닥토닥’...당진시 토닥이 버스 운행”

충남 당진시는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5위가 자살인 만큼 심리지원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부터 주2회 토닥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토닥이 버스는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스트레스 측정기 등 기자재를 완비했다.

1차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가 높거나 우울증이 우려될 경우는 토닥이 버스 안에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전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과 연결시켜 주고 진료비 지원도 해준다. 주민들은 토닥이 버스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 당진시는 당분간 자살률이 높은 지역과 대학가 중심으로 상담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 위기대응 역할을 수행하고,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 “아파트 앞 ‘홍물’...미사용 군 시설 철거 결정”

빈집은 슬럼화의 상징으로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2023년 1,200여 세대가 입주예정인 인천 송도의 신축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폐쇄된 동막소초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시민들은 호수 주변을 산책할 때 폐가가 주는 음산함에 무서워하고 있다. 군과 인천시는 2012년 매립으로 군 시설 이전이 합의됐지만 철거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가 해안 경계 지역을 매립한다고 해군과 철거될 군 시설을 정하고 이전을 합의했지만, 해당지역의 매립은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어 군 시설은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막초소 부지가 도시계획상 공원과 도로가 위치해야 한다고 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육군 17보병사단, 인천 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국방부 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실무자 협의를 통해 중재에 나섰다. 지난달 10일 조정에 이르러 육군 17보병사단은 아파트 준공 전까지 초소를 철거해 주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은 병영시설을 신축해 주기로 했다.

프로그램	특별생방송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민방문 성과'		
방송일자	2021. 12. 15.	시청률	0.023

【총 평】

특별생방송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민 방문 성과'편은 오랜 우방 국가인 호주를 방문하고 예우를 갖추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 협력, 그리고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 협력과 우주 개발 등 수교 60주년을 맞은 호주와 긴밀한 협력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신남방정책' 등 한국과 호주간 협력 배경 가운데 호주 방문의 가장 큰 성과로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을 꼽을 수 있다. K-9 자주포 도입 사업 예산 규모가 최대 1조900억에 이른다.

【구성 및 내용】

호주를 국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또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다. 동반자 관계에서 격상한 '포괄적 (comprehensive) 전략동반자'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뜻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는 지난 10월 양국이 탄소중립기술협력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한국기술을 탐낸 호주가 먼저 제안을 했다. 이에 우리가 수락하면서 공정 핵심의 전체 단계에서 협력하게 되었다. 전략적동반자에서 포괄적 전략동반자로 격상했다는 것은 각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선언적 의미이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호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대동소이하다. 우리나라는 한반도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정책적 공간을 만들어 선진국 외교로 가려는데, 신남방 지역이 바로 그 공간이다. 신남방과 인도-태평양 두 개의 접점분야에서 다양한 워킹그룹으로 협력을 할 수 있고, 호주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신남방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세 나라가 협력한다면 건설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신남방,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체적인 틀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구체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광물 보유량은 호주가 세계 1, 2위를 차지한다. 핵심 광물들을 분리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중국에 그 일을 맡겨왔었는데, 중국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인도네시아가 대체국이 되었고, 분리정제 기술은 한국이 적격이므로 세 나라가 협력하게 되는 구도가 완성되었다. 수소경제도 마찬가지로 전략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대통령의 방문은 2~30년 후의 기술 수요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다목적 포석을 깔아놓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또 그린 수소 확보에 한-호 협력 프로젝트는 이미 가동되었다. 수소는 액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파이프라인 연결 시에는 누수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